



왼쪽 · 민영순, 알람 테수자 <현장 작업> 비디오 2004 오른쪽 · 민영순, 알람 테수자 <3D출구: 절망적인, 일회용, 추방된> 2004

사진 · 조영하

### 이주노동자와 경계 위의 삶

Xen-이주, 노동과 정체성展 8.13~9.18 씬스페이스

20여만 명에 이르는 해외 입양인을 양산한 나라, 지금도 한 해 2000여 명의 아이가 그렇게 비행기에 오르는 나라, 전세계에서 4위에 달하는 해외 이주민을 거느린 나라, 그러면서도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고용법(보통 고용허가제로 불리는데)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는 나라. 민영순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이런 이윤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환경에 대해서 발언한다. 이주문화의 수혜자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주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순된 현실을 고발한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다국적 문화주의가 잉태될 수 있는 토양을 본다(혹은 바란다).

작가가 2002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 작가를 대상으로 이산(離散)을 다루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이와는 거꾸로 현재 국내에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移住)를 다룬다. 따라서 민영순의 작업은 다름 아닌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우선 이는 이주자 자신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이주자를 보는 내국인의 이중적인 시각으로 현상한다. 여기서 이주자 자신은 이질적인 두 문화간의 차이를 자기 내부로부터 살아야 되는 혼성문화의 주체가 되고, 또 그를 보는 내국인은 타자에 대한 자의식을 내재화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이며, 가역적이다. 흩어져 살기, 옮겨 다니며 살기, 이산과 이주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일상이며, 주체를 만드는 성분이다. 나는 너이고, 주체가 곧 타자이다. 타자에 대한 이런 가역성과 상호성의 인식이 자리잡지 못할 때, 단순히 사물화할 뿐이다. 한낱 사물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 그들은 국내 노동자의 현실로부터 소외된 채 언제나 주변부에 머문다.

전시 내용을 보면, 이주노동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녹화 당시대로 캠코더로 제시해서, 이를 헤드셋을 착용하고 작은 액정화면을 들여다보게 한 8개의 비디오 설치

<현장작업>이 있다. 이는 관객이 직접 인터뷰의 주체로 참여하는 듯한 생생한 주체함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마치 수면에 텍스트(주로 이주노동자의 정체성을 다룬)가 떠다니는 듯한 원형 스크린에 투사된 비디오 설치작업 <우리에게 이방인>은 떠도는 텍스트와 함께 떠도는 이미지, 떠도는 정체성, 떠도는 관념을 상기시킨다. 이주하는 것이 몸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같은 주체를 이루는 가치관과 이념도 함께 이주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이런 개념은 이주노동자들의 시위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벽면에 회전시켜 투사한 <움직이는 표적>에서는 분절된 개념의 형태로 현상한다. 분절된 화면, 흔들리는 화면이 보행자와 이주노동자의 관계의 실체를 붙잡을 수 없게 방해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절된 화면은 분절된 단어들로써 강화된다. 짜깁기된 단어들, 전유된 의미들, 원래의 텍스트로부터 미끄러져서 새로운 맥락에 편입된 개념들이 불안정하며 유동적인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해준다. 그리고 그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굳어진 배타적인 언어의 지평 너머로 개별적인 언어, 차별적인 언어, 이질적인 언어를 퍼뜨리는 주체가 된다. 움직이는 표적은 흔들리는 경계의 다른 이름이며, 이주노동자와 보행자의 대타적인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타자의 언어(혼성적 언어)를 통해서 주체의 언어(배타적 언어)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과 계기를 보여준다.

또한 검침된 차고속 벽면에서의 강제로 설정된 거리 때문에 읽을 수 없는, 노트 한 장만을 달랑 부착한 <3D 출구: 절망적인, 일회용, 추방된>에서 민영순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만날 수 없는 심리적 거리감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객은 전시장 입구의 카메라에 장착된 모니터를 통해서 '사파타'는 2004년 2월 15일 강제연행된 후 추방되었다 고 적힌 그 노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관객은 단지 방관자로서, 관찰자로서, 인터뷰의 주체로서만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외국인에 대한 공포와 동경을 동시에 함축하는 전시제목 <젠(Xen)>은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의 현실을 위협하는 자로서, 그리고 3D 작업을 위해 부릴 수 있는 매력적인 재원으로써 확대 재생산한다. 이윤배반적인 이런 인식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미지수, 이름을 상실한 사물, 노예, 소유물, 그리고 주체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순적인 정체성의 소유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일반적인 타자(상호적이고 가역적인 타자의 인식과 비교되는)와 인종차별, 그리고 내재화를 강요받는 트라우마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고충환 · 미술비평

### 가족 이데올로기와 과거형 미래

2004 해외입양인미술전 입양인, 이방인展 8.5~14 글산갤러리, 동산방화랑

미국에서 10만, 유럽에서 10만의 한국인이 미국인과 유럽인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해외입양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올 여름 수천 명의 그들이 모국을 찾았다. 핏덩이로 떠난 그들이 모국을 다시 찾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친부모를 만났으면 좋겠다'며 애타게 가족을 찾는 모습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익히 보아왔다. 11인의 작가가 사진, 드로잉,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실험영상 작품 등 40여 점을 선보이고 "예술과 행동주의(Art and Activism) : 해외입양인 예술가 작품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이 전시는 해외입양인들이 가지는 이방인의 정서를 환기시킴으로써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입양국이라는 비극을 넘어서기에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과거형 미래'가 여전히 너무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치열한 작업은 예술(가)의 치유 기능을 새삼 되새기게 한다.

1968년 생으로 이듬해 벨기에로 입양된 미희 나탈리

Review, page 182, with 2 color reproductions

**Migrant Workers and the Life on the Borders**

Exhibition "Xen-Migration, Labor, and Identity" August 13-September 18, *Ssamzie Space*  
by Ko Châunghwan, Art Criticism

A nation that has exported over 200,000 adoptees to foreign nations. A nation that, even today, places 2,000 children up for foreign adoption every year. A nation that ranks fourth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immigrant going abroad to live. All the while, a nation that quietly discriminates against migrant workers within its own nation under the guise of Employment for Migrant Workers Law (commonly called the System for Employment Permit). Yong Soon Min speaks out against this ethos of duplicity and antimony that migrant workers face in South Korea. As someone who is a product of hybrid cultures herself, Min interrogates the xenophobia that is the reality of Korean culture that benefits from, yet discriminates against migrant cultures within its own borders. Yet we may see (or hope for) the soil that is the beginning of transnational multiculturalism, even within this insular peninsula.

While Min's previous work addressed Korean diaspora—by curating together the works of Korean artists who live and work abroad (GWANGJU BIENALE, 2002), this exhibition looks inversely, looks at the presence of foreign migrant workers who live and work within Korea. By reflecting on migration, Min ultimately addresses the issues of identity in shifting terrains.

Having personally experienced and thus sensitive to the identity crisis that comes with migrant experiences, Min examines the two-faced ways in which the Korean citizenry views migrant workers within their borders. Here, the migrant becomes the hybrid subject who must negotiate cultural differences. The citizen, on the other hand, internalizes his/her self-consciousness that is aroused by the presence of the Other.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nt and the citizen is relative rather than absolute, and it is mutable rather than fixed. With transnational globalization, displacement and migration have become normalized patterns that know no national borders. Such movements of people become the ingredients for creating new subjectivities: The boundaries between I - You, and the Subject - Other become blurred. When there is a failure to comprehend this cultural shift by the citizen, the migrant other becomes a mere object, dehumanized and objectified as subaltern, relegated to the margins of society.

Min's exhibition is comprised of four separate yet related video installations.

In *Field Work (Hyunjang Joggop)*, eight videos each showing interviews with migrant workers are played directly through video cameras. By allowing the viewers to use headphones and peer into the small LCD screen of the cameras, Min draws the viewer closer to a first-hand participation in the interview process.

There is *Strangers to Ourselves (Uriegge Ibangin)*, projected in a circular shape on a gallery wall, and reflected on the glassy concrete floor below. The projected images and text (that deal with the issues of migration and identity) have been captured through a reflection on a watery surface. The floating images and text captures visually the

instability of floating identities. What is suggested here is that what migrates is not only the physical body, but also ideologies and value systems that create different subjectivities.

The narrative of these migrants' fragmented lives appear as fragmented images in *Moving Target (Umjiginen Pyojok)*. A video of a migrant workers' demonstration on a busy city street is projected from the top of a turntable, which allows the projected images and text to move circularly around the rectangular room. Digitally manipulated to appear fragmented and shaky, the images of the demonstrating migrant workers and the pedestrians passing by resist a clear reading of the possible relationship suggested by the juxtaposition.

These revolving images accentuate and augment the fragmented words that cover the walls. Collaged words, co-opted meanings, and slippages of concepts away from their original contexts have all been incorporated into a new thread, to speak of the precarious and unstable existence of migrant workers. These concepts, then, become a new language, a discriminating language, and an individual language, beyond the language of exclusion, which is hardened from biases and prejudices. The title, "Moving Target" implies a fluidity of boundaries, the border that exists between the migrant workers and the pedestrians. It also suggests the possibility and the opportunity for going beyond the language of the Subject (characterized by exclusivity) to the language of the Other (characterized by hybridity).

In *The 3D Exit: Desperate, Disposable, and Deported (3D Châulgu: Chelmangj\_gin, Ilhoeyong, Châubangdoen)*, a single page is stuck on a wall in a dark garage. The page is rendered unreadable because of the distance that has been forcefully fixed on the audience. Here, Yong Soon suggests the feeling of the impossible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migrant workers and citizens. The audience is able to confirm the content on the page ONLY through a camera and a monitor installed near the gallery exit. The page reads, "Samar Thapa was captured on February 15, 2004 and deported." Through this forced separation, the audience is able to see the reality of the migrant workers only as indifferent onlookers, as observers of distant and foreign subjects of interviews.

The title of Yong Soon Min's exhibition, *Xen (Jen)* suggests the paradoxical fear and desire towards foreigners: the perceived threat by the migrant workers as taking employment from citizens, coupled with the desire to relegate "3D" work ("Dirty, Dangerous, and Demeaning") to foreigners as a source of cheap labor. From within this duplicitous and contradictory place, the migrant workers is revealed as a possessor of paradoxical identity—one who become faceless, nameless, a possession, and a slave, yet a once claiming subjectivity. The migrant worker, faced with this trauma, is forced to accept the brutal reality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her/his position as the absolute Other.

Translated from Korean into English by David Khang